2006년 표어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63호

발행일 : 2006년 3월 5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중예배실 1층 로비, '푸른초장' 으로 새 단장

'쉴만한 물가' 에 이어 성도들을 위한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주님의교회 봉사사역본부는 주일과 주중에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푸른초장' 을 열었다. 2월 19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중예배실 로비에 모인 성도들은 '푸른초장' 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 참여한 문동학목사는 푸른초장이 이름에 걸맞게 성도들의 쉼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사역자들을 격려했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1층 로비와 쉴만한 물가는 모인 성도들로 비좁다. 푸른초장은 지하 1층 중예배실 앞의 로비를 이용, 1층의 혼잡을 다소 해소하고 50여명이 동시에 앉아 만남과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1층 동쪽 복도의 유년부실 앞은 자녀를 찾으러 오는 학부모들과 그곳을 통행하는 성도들이 동시에 만나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푸른초장은 이러한 혼잡을 피해 자녀와 부모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봉사사역본부 박호길 장로는 전한다.

양육과정안내 3면

Coming Learning Working Going TO IN FOR WITH Christ Church Community Christ

2006-1학기양육과정의 개설과목 시간표를 소개한다.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4면

홍부출판부는 새가족들과 교회안내를 위한 교회 안내지를 제작했다.

안내부 남한산성모임 2면

희망의뜨락 유년부 3면

제1 남선교회 / 마라톤안내 4면

은혜는 마약중독환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한 산속, 비포장 길을 따라 6Km 들어서면 빈 흉가를 수리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훈련센타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역지인 이곳에 오면 흑백필름으로 갈아 끼운 오래된 사진기가 연상됩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그 흔한 이동전화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은 냇가에 연결한 파이프로 얻습니다. 이들의 식탁에는 밥, 팥, 그리고 야채 한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 밤을 보냅니다. 침묵과 어두움 속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를 별들과 별동별까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소리에 눈을 뜨면 우리는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자명종처럼 울립니다. 그 순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 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불편한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새벽 묵상, 하루의 노동, 저녁 묵상... 이 반복되는 일들조차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모습은 귀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훈련되어서 또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06년 1월 코스타리카에서 금상호 드림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오늘' 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 로 초대하십시오. 4부 예배 '오늘' 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06년 3월 5일 주일

"나의 사랑하는 책" _ 오늘연주팀
"5분안에 보는 성경의 역사" _ 오늘영상팀
"성경 100배 즐기기" (요한복음 20:30~31) _ 이호목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_ 최성은

Misson 함즐함물, 표준어사용 시리즈 2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살림살이를 흉내 내며 노는 장난은 '소꼽장난' 이 아니라 '소꿉장난'이 맞다. '소꿉' 은 자질구레한 그릇 따위의 장난감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국어 시간에 배운 모음조화에 따르면 '소꼽'이 맞겠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소꿉장난' , '오순도순' , '단출하다' , '깡충깡충' 따위가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해야한다.
"어린 시절 '소꿉장난'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 때는 뭐가 그리도 오순도순 재미있었는지..."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홍보출판부, 교회안내지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제작

"또 다른 메시지인 이미지 작업, 효과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안내지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가 제작 되어 성도들에게 선을 보였다. 만들어진 안내지는 교회 찾아오는 새교우들은 물론, 지난 주간 학원선교부에서 준비한 정신학원 입학선물에 포함되어 교회를 소개했다. 오랜 시간동안 공들여 제작된 이 안내책자는 교회의 비전과 공동체, 예배와 교회학교, 양육과정과 봉사사역 등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언론사가 선거연령조정으로 첫 지방자치제 선거권이 주어진 19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선거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들의 우선되는 판단의 기준은 '정당' , '인물' , '능력' 이 아니라 '이미지' 였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이데올로기나 지역감정, 능력의 수치보다 '이미지' 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예견하게 된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의 완성은 재정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저예산 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집으로' 는 튼튼한 시나리오만으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지만 영화제작비 만큼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이 영화는 결코 저예산 영화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쵸코렛 보다 비싼 바구니로 포장해야 팔리는 발렌타인 쵸코렛을 통해 반영되는 현세대를 보게 한다.

이미지 시대에 사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의 빈껍데기 신앙과 교회를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지의 무용론 혹은 세속성을 말하는 것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순간적인 이익을 얻고자하는 세속적인 방법들을 철저히 거절하되, 올바른 메시지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이미지' 의 발전을 주도해 가야 한다. 신학자 피에르 바벵은 예수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임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가장 완전한 미디어였다고 말하며 미디어시대의 교회의 대응을 철저히 준비시킨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는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홍보작업들이 시대의 요구에 뒤처지지 않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인 전달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해 나갈 것이다.

홍보출판부 김현령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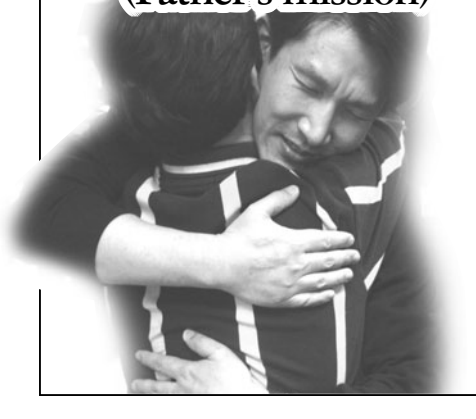
한 자리에 모인 안내부, 주님께 하듯 성도들을 섬기기로 다짐했다.

주일이 되면 각 예배실의 입구에서 반가운 인사로 성도를 환영하며 주보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주보를 들고 예배실 안으로 들어서면 또 한 번 따듯한 인사와 함께 빈자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목양사역본부의 안내부 봉사자들이다. 안내부원들을 주일 이른 아침 시작하는 1부 예배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4부 예배를 돕기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부장 박동수안수집사와 40여 명의 부원들은 2월26일 주일 오후 남한산성에서 모였다. 봉사시간이 달라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 친목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모임은 김경신 장로의 기도에 이어 정영환 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정목사는 안내부원들을 격려하며 기계적인 인사의 반복이 아니라 중풍병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들처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까지 우리의 역할을 확장시키자고 했다. 주님을 섬기듯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다짐한 참석자들은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고 인사법과 용모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아버지학교 브리핑, 그 3번째 만남

"아버지의 사명"

(Father's mission)



지난 주일 아버지학교의 주제는 아버지의 신분과 사명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땅의 모든 신분이 그렇듯이 아버지라는 직분 역시 고유한 역할과 특정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 역할과 사명을 상실할 때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된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 자녀의 원천이 되는 사명
- 자녀에게 지표가 되는 사명
- 자녀에게 자부심이 되는 사명
-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사명

이 4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 작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맡기신 소중한 사명들이다.

방과후학교 교사수련회

방과후학교에서는 지난 2월 17일(금)~18일(토)까지 청계산 기도원에서 교사수련회를 가졌다. 저녁예배를 드린 후 교사들은 같이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했다. 각자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좀 더 이해했다. 펼쳐놓은 학생들의 기도제목은 뜨거운 중보 기도로 이어졌고 어느덧 새벽을 맞이 했다. 교회로 돌아온 교사들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다.

PCL Nurture System

◆ 2006-1 주님의교회 양육과정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은 봄과 가을, 신앙과 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믿음의 기초와 교회생활의 안내, 성경의 이해, 말씀의 실천, 복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 과목은 교회에 낯선 이웃에게 복음전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 요일별 안내 (일부과목은 요일 및 개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주 일	새가족모임 (새가족양육교사) 세례교육 (정희성) 예수님처럼 (제자훈련 정희성) 선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선교이야기 손영익 外) 말씀서예 (문화강좌 정도일) **(요일변경)**
화 요 일	하나님의 파트너 (소그룹훈련 전교역자) 인생은 아름다워 (하프타임강좌 특강강사16명) 생활공예 두루뭉수리 (문화강좌 함혜련) 영적전쟁과 엘리야 (열왕기상 박의일)**3월 7일 개강** 소리, 하나님이 주신 악기 (찬양학교 이혜정) 중국문화의 이해 (문화와 역사 김삼화) Sound For God (음향학교 윤태수) **요일변경 및 3월 7일 개강**
수 요 일	구역이끄미 모임 (리더훈련 전교역자) 기타학교 (문화강좌 강현석)
목 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구약개요 이호)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신약개요 신화식) 부르심과 응답 (은사사역세미나 이창현/우동윤)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빌립보서 홍민기)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 (인간의이해 김광일)
금 요 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전도의 삶 박의일) **3월 10일 개강** 구역모임 (구역별로) 노래학교 (문화강좌 김정아) Building a community in Christ 에베소서 (영어성경 나현수) **3월 10일개강** イエス様と 共に 歩む 日々 마태복음 (일어성경 이시야마 유리, 신영숙)
토 요 일	CCM 키보드연주의 실제 (찬양학교 이종익)
비 정 기 세 미 나	교사의 힘 (교사훈련 홍민기 外) 내 증인이 되리라 (단기선교훈련 윤은성 外) 중보기도, 예수님의 초대 (중보기도세미나 정영환)

개설과목		강사	시간	장소	
새가족모임		새가족교사	주 10:40-11:40 12:40-14:00	대회의실 중고수련실	4F 2F
세례교육		정희성	주 13:30-3:30 (교육 기간 중)	초등부실 중고수련실	3F 2F
구역모임		구역별	금 혹은 구역에 따라	구역의 가정	
하프타임강좌	인생은 아름다워	특강강사16명	화 14:00-16:00	소년부실	3F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말씀서예	정도일	주 13:30-15:00	식당2	B1
	생활공예 두루뭉수리	함혜련	화 10:30-12:00	소회의실	4F
	기타학교	강현석	수 10:30-12:00	유치부실	B1
	노래학교	김정아	금 10:30-12:00	찬양대연습실	5F
구약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호	목 10:30-12:00	초등부실	3F
신약개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신화식	목 10:30-12:00	소년부실	3F
제자의삶	예수님처럼	정영환	주 13:30-15:00	소년부실	3F
열왕기상	영적전쟁과 엘리야	박의일	화 10:30-12:00	찬양대연습실	5F
빌립보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홍민기	목 10:30-12:00	찬양대연습실	5F
영어성경	Building a community in Christ 에베소서	나현수	금 10:30-12:00	당회원실	4F
일어성경	イエス様と 共に 歩む 日々 마태복음	이시야마 유리 신영숙	금 10:30-12:00	소회의실	4F
선교이야기	선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손영익	주 13:30-15:00	당회원실	4F
찬양학교	소리, 하나님이 주신 악기	이혜정	화 10:30-12:00	찬양대연습실	B1
인간의이해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	김광일	목 13:00-14:30	대회의실	4F
문화와역사	중국문화의 이해	김삼화	화 10:30-12:00	초등부실	3F
은사사역세미나	부르심과 응답	이창현 우동윤	목 10:30-12:00	대회의실	4F
리더훈련	구역이끄미 모임	교역자전원	수 20:30-21:30	소년부실	3F
교사훈련	교사의 힘	홍민기	3/26, 6/4-5, 9/24, 11/5-11/26	소예배실 外	1F
소그룹훈련	하나님의 파트너	교역자전원	화 20:00-21:30	소년부실	3F
중보기도세미나	중보기도, 예수님의 초대	정영환	4/20 목 19:00-22:00 4/22 토 9:00-18:00	세미나실	5F
찬양학교	CCM 키보드연주의 실제	이종익	토 16:30-18:00	찬양대연습실	5F
음향학교	Sound For God	윤태수	화 19:30-21:00	찬양대연습실	5F
전도의삶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박의일	금 10:30-12:00	찬양대연습실	5F
단기선교훈련	내 증인이 되리라!	윤은성	5-6월 중	초등부실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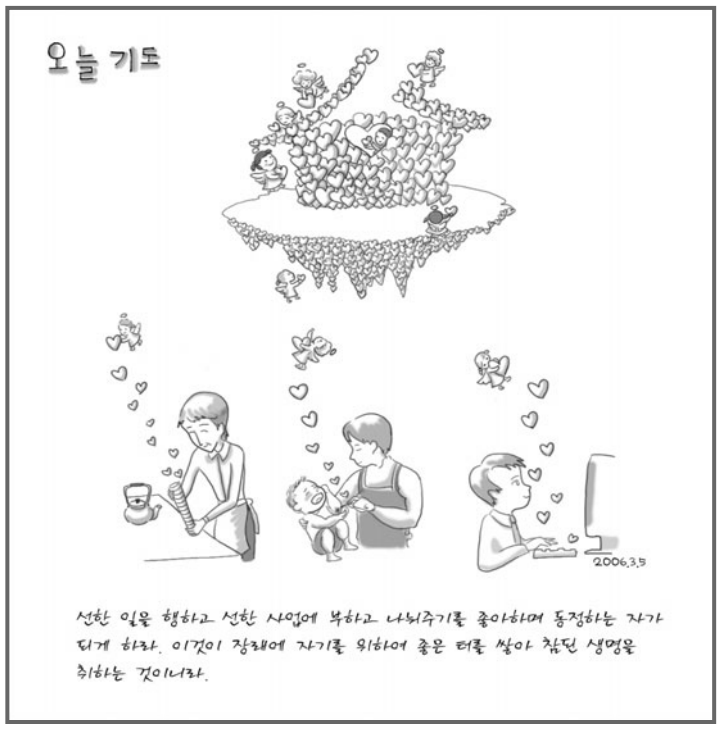
희망의 뜨락 유년부,

부모초청예배와 봄맞이 성경학교

유년부는 지난 2월19일(주일), 11시3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부모초청 예배 및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초청 예배는 부모를 초청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새 학년이 된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만남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또한 봄맞이 성경학교에 대한 광고도 있었다.

부모초청예배는 어린이들의 예배과정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평소에 드리는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먼저 진승미, 최윤정 선생과 함께 찬양단 어린이들이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단 어린이들은 예배찬양인도를 위해 매주 예배 전/후에 연습 시간을 갖는다. 또 '퀴즈맨' 시간이 있었다. 퀴즈맨이 나와서 퀴즈문제를 내어 어린이들이 지난 주 말씀을 다시 기억할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유년부 담당인 김금숙 권사가 기도했고 이진화 전도사가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부모님과 교사들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얼굴을 익히며 아이들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부모 역시 자녀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또한 유년부는 지난 2월25일(토)~26일(주일)까지 교회에서 "타임캡슐~예수님께로!"라는 주제 아래 2006년 봄맞이 성경학교를 열었다. 예수님의 유년시절에서 십자가 부활까지의 생애를 파노라마로 엮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족식, 성경을 직접 체험해보는 센터학습, 과자집 만들기, 마술쇼 등 아이들의 오감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 어린이는 마술쇼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유년부의 이진화 전도사는 봄맞이 성경학교를 통해 유년부 어린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과 함께 기도와 땀으로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한주간의 함즐! 함울!

"함께 축하합니다"

◆ 3월 4일(토) 오후 2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오성택군(8교구)과 강성원양(8교구)의 결혼예식이 있었다. 주례는 신랑의 부모가 섬기는 강원도 홍천의 희망교회 김광섭목사가 맡았다.

"함께 위로합니다"

◆ 지난 주간 전북 부안장례식장에서 고 송소녀집사의 장례식이 있었다. 고인은 김완중장로(김인숙집사, 5-29)의 조모이다.

또 충남 홍성의료원에서는 고 황경순성도의 장례식이 있었다. 고인은 황태동성도(김복경성도, 2-3)의 부친이다.

3월 2일과 3일 경조부원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우동윤목사)와 입관예배(이창현 목사)를 드렸다.

[한주간의 함즐!함울!]은 최종기사마감시간까지 파악된 소식만을 싣습니다. 금요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소식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12일) 국제 마라톤대회

"온가족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특별한 센스"

다음 주일(3월 12일)에 2006 동아 서울 국제 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06:00-13:30까지 서울시내 곳곳이 부분적으로 통제된다. 마라톤 출발지점 주변인 세종로를 시작으로 구간별 교통통제 이루어진다. 특히 도착지점인 교회주변(아시아아파트 삼거리-운동장 남문입구)은 9:28-13:30까지 통제된다. 이에 따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라톤 행사가 이어지고 그 때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는다. 간혹 마라톤 교통통제로 인해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마라톤과 상관없는 주일예배 참석을 위해 온가족이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특별한 센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 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세종로 일대(start 지점 주변)	6:00	8:40
세종로 이순신장군동상 앞 ~ 을지로입구역	7:30	8:54
을지로입구역 ~ 을지로 5가 사거리	7:33	9:06
을지로 5가 사거리 ~ 시청광장 부산은행 앞	7:37	9:22
시청광장 부산은행 앞 ~ 청계8가 고산자교	7:45	10:00
청계8가 고산자교 ~ 청계천 광교	7:56	10:35
청계천 광교 ~ 종로5가 흥인지문	8:17	10:54
흥인지문 ~ 신설동 오거리	8:24	11:04
신설동 오거리 ~ 동대문구청	8:29	11:14

구 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동대문구청 ~ 군자역	8:33	11:42
군자역 ~ 어린이대공원역	8:45	11:50
어린이대공원역 ~ 성동교 사거리	8:49	12:08
성동교 사거리 ~ 서울숲 입구	8:56	12:15
서울숲 입구 ~ 자양2동 사거리(잠실대교북단)	9:00	12:41
자양2동 사거리(잠실대교북단) ~ 석촌호수 남단 사거리	9:10	13:03
석촌호수 남단 사거리 ~ 배명고로터리	9:19	13:13
배명고로터리 ~ 아시아선수촌 APT 삼거리	9:22	13:24
아시아선수촌 APT 삼거리 ~ 잠실종합운동장 남문입구	9:28	13:30

2006년 봄학기 PTP 개강

2005년도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진행되었던 PTP(Parent Teacher Prayer)가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일에는 135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2006년을 여는 기도회'를 가졌다. 말씀을 전한 홍민기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교하며 기도회의 주제인 '21세기 다니엘 만들기'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다니엘과 같은 인물로 키워 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별히 올해에는 자녀연령에 맞추어 나눈 소그룹 기도모임을 활성화하여 학부모간에 좀 더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도회는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부모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PTP 봄학기
3월 11일(토) - 6월 10일(토)
오전 10-12시 1층 소예배실

제1 남선교회 월례회

지난 2월 26일 주일 1시 집회실3에서 제1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였다. 월례회로 모인 50여명은 앙코르 합창단과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다. 이어 정영환 목사는 참석한 회원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했다.

이날은 특별히 장순길 집사(前 대한항공기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직접 체험한 30년의 비행경험을 바탕으로 긴급 조난신호, 저가항공기의 실태, 이착륙의 11분 등 비행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뿐만아니라 동방정교회의 결혼식 모습과 같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하여 설명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회원들의 질문공세는 다과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 또 한 번의 특강 약속을 받아 냈다. 이렇듯 제1남선교회는 생활에 유익한 특강을 비롯하여 등산과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간의 만남의 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2006년 제1남 선교회의 회장으로는 오종세 안수집사가 선출되었고 총무와 회계로는 권순영, 박선일 집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성지순례 탐방기1

이방 신전 앞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 위해 지신 십자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도착했을 때 한 현지인이 필자에게 말을 걸었다.

"안뇽~하세요. 사진?"

타국에서 듣는 한국말에 정감을 느껴 "예스, 탱큐!" 하며 카메라를 건네주었다. 그는 자신의 터번을 내게 씌워주고 서너 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기를 돌려 달라는 나의 손짓에 그는 "투 달러!"라고 외치며 뒤로 물러났다. '이 여행을 위해 산 나의 최신형카메라' 들고 말이다. 내심 불안했지만 태권도 자세를 한채 이렇게 말했다.

"원 달러, 오케이?"

카메라를 돌려준 그는 "땡큐!"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미화 한 장을 낚아채어 달아났다. 이 이야기는 성지순례의 첫 방문지에서 경험한 웃지 못 할 추억이 되었다.

이번 제2차 성지순례단은 이창현 목사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일행은 일 년 전부터 성지순례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이번 순례가 그 과목의 수료 과정이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필자와 몇몇을 위해 특별한 과외도 준비되었다.

잠을 설치며 비행기로 날아오니 계절은 초가을로 변해 있었다. 이륙 직후부터 몸이 안 좋았던 아내는 구토를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폐를 끼치기 싫어 숨겨 오다가 결국 일행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손가락을 따고, 수지침을 놓는 등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받았다. 그러나 오직 나의 소망은 호텔로 가는 것이었다.

첫째 날 우리들의 여정은 기자(Giza)의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 피라미드를 대면하는 첫 느낌은 사진으로 가졌던 환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어마어마한 돌무덤, 그 것에 비해 시신 안치실은 좁고 협소했다. 피라미드를 만든 시대적 배경과 이유를 들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웅장한 피라미드가 눈 앞에 펼쳐지자 활기를 얻은 우리 일행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의 한 눈으로 피라미드를, 또 다른 한 눈으로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분심을 눈치 챈 아내는 먼저 가보라고 손짓했다.

기자의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첫 번째는 쿠푸왕의 것, 여기에 사용된 바위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 총 230만개를 60미터 높이로 쌓았다고 한다. 10만 명이 20년간의 노동력을 들여야만 쌓을 수 있다는 엄청난 크기의 무덤이다. 왕의 무덤을 예비하며 일생을 보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했다.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 되어 우리 부부는 오후 일정인 고고학 박물관을 포기하고 택시로 호텔로 돌아왔다. 문화의 발원지이며 고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 동 서양을 잇는 무역과 금융의 허브 카이로 거리, 지금 이곳을 달리는 낡은 택시는 오래된 증기기차처럼 힘들게 연기를 내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계엄 하에 있는 거리, 그곳에는 시민이 반 경찰이 반이다. "혼돈"이라는 말의 의미가 피부에 닿았다. 호텔에 도착하자 의사는 아내에게 "헬리코박터" 진단을 내려 주사와 안정제를 처방했다.

둘째 날 일정은 룩소. 아내의 설득에 못이기는 척, 아내를 홀로 카이로 호텔에 두고 룩소행 새벽 비행기를 탔다. 사막 위를 비행하는 동안 나는 창 밖에 눈을 떼지 못했다. 상상으로 그렸던 사막! 영화 '십계' 에 나오는 그런 모래사막은 보이지 않았다. 진흙과 모래가 범벅되어 굳어진 평지, 거기에 홍수로 깊이 패어진 계곡이 마치 그랜드캐년을 방불케 했다. 룩소에 도착할 즈음 황량한 사막을 가르는 강이 나타났다. 강 주위의 울창하고 푸른 농장이 눈에 들어왔다. 죽음과 같은 광야, 그렇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다. 지금의 룩소는 주후 4세기에 성 파코미우스의 공주수도원이 있었던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 수도원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곳을 방문하고 싶었던 나의 기대가 컸었기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룩소의 첫 방문지는 왕가의 계곡! 기자의 피라미드를 계속 짓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곳을 왕들의 공동묘지로 선택했다고 한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발견된 64개의 파라오의 무덤 중 단지 네 곳만을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네 개의 무덤을 돌아보는데도 두 시간이나 걸렸다. 습한 무덤 안은 왕의 치적과 저승길을 설명하는 상형문자들로 가득했다. 한 뼘이나 되는 두꺼운 관 안에 파라오의 미이라는 간 데 없었다. 화려한 장제전, 카르낙과 룩소의 신전은 당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파라오 자신들만을 위한 백성들의 피와 죽음의 댓가이기도 했다. 문화제가 된 이방 신전 앞에선 필자는 문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죄인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최대형 협동 장로